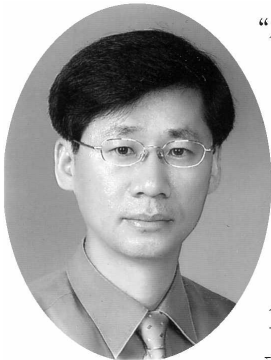


업체 탐방

기능은 편리하게 디자인은 아름답게!

<배선기구 제조업체 (주) 일신전기>

기술정보신뢰성과 행정사무관 이덕웅
02) 509-7232 dwlee@ats.go.kr



김종술 대표이사

“기능은 편리하게 디자인은 아름답게! 세련된 디자인과 세심한 정성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격조높은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이 실내분위기를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름다운 고품격 디자인으로 생활의 격조를 높이세요.”

“양심이 담기고 혼이 있고 신명이 살아 움직이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품도 살고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안전하고 신들립니다.”

1999년에 일신전기를 설립하여 줄곧 콘센트, 플러그, 멀티탭을 전문적으로 제조해온 김종술 사장의 일성이다.

전기제품과 전자기기의 정상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부품, 반도체부품 및 저항이나 콘덴서 등의 수동부품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수단이 바로 배선(配線 : wiring)이다.

멀티탭, 스위치, 소켓 등 배선기구제조업체는 요즘은 깊은 늪에 빠져있다. 지난해 말경부터 동이나 전선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또 유가까지 들먹여 재료비용까지 상승바람을 타고 있어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설상가상적으로 배선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설경기마저 주춤하면서 산 넘어 산이다. 짊어치우고 싶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플러그, 콘센트나 스위치와 같은 배선기구는 주로 폴리커버나이트와 같은 석유화학제품과 철, 전기 등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난 외환위기(IMF) 시절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제품의 구성요소인 원자재와 원유가격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제품가격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난립하여 서로 넘평하는 바람에 제품가격은 바닥을 쳐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약하고 값싼 중국산이 부분별하게 대량 유입되고 있어 큰 원인이입니다.”

김사장의 고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5일 근무제니 뭐니 해서 인건비도 사실상 오른셈이 된다. 이러한 어

려운 형편속에서 대개의 중소 전기제품 제조업체는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거나 옮길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김사장은 절대로 중국으로 안가겠다고 한다. 한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만든 배선기구도 다양하다. 키소켓, 방수소켓, 램프용 리셋터클, 콘센트, 꽃음플러그, 멀티탭, 접속커넥터, 배선용 꽃음접속기, 옥내용 소형스위치, 그리고 일반이동형 조명기구인 백열등기구까지 만들어내 명실공히 배선기구 전문제조업체다.

김사장의 신념은 자못 확고하다.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친화성 이 세가지 요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련된 디자인과 세심한 정성이 우리의 생활을 한차원 높이 끌어올려 삶의 질도 향상되고 편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선기구는 어떤 의미에서 주변기기같이 생각이 되나 전기제품과 제품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주요부품이라 할 수 있다.

“멀티탭은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의 주거문화를 한차원 높게 끌어올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조높은 디자인, 다양한 색상과 기능이 우리의 실내분위기를 한껏 돋구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기능은 편리하게, 디자인은 아름답게’ 라고 외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조입니다.”

김사장의 생각은 세련된 디자인과 세심한 정성이 결국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사용하고 있는 전기용품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거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선기구는 그중에서 약방의 감초격으로 여러 전기제품에 연결되어 조커(joker)와 같이 사용되는 편리한 기기입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김사장이 평소 품고 있는 전기제품의 이국편민(利國便民)의 사상은 대단하다.

제로베이스에서 배선기구 제조를 시작했다는 김사장은 소탈하며 솔직담백하다는 것이 주위 직원들의 평이다. 일밖에 모르며 어려운 시

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와준 직원들에게 후에 보답하는 것이 그의 소원중에 하나란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자>라는 사훈은 그의 초등학교 때의 좌우명인데, 기업대신 그때는 사람이었다고 환하게 설명한다. 